

# ‘起來’와 ‘起去’의 비대칭 현상에 관한 고찰

申景媛\*

## <목 차>

1. 서론
2. ‘起來/去’의 초기 출현과 문법화(Grammaticalization)
  - 2.1 ‘起來’의 초기 출현과 ‘V起來’로의 문법화
  - 2.2 ‘起去’의 초기 출현과 ‘V起去’로의 문법화
3. ‘起來와 ‘起去’의 현저성(saliency)
4. 결론

## 1. 서론

현대중국어에서 ‘起來’는 ‘성취동사(achievement verb)’에 해당하는 ‘起’와 심리적 기준점을 제공하는 ‘來’가 결합된 것이다.<sup>1)</sup> 이것은 문장에서 술어동사(起來<sub>0</sub>)

\* 高麗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博士課程.

1) 본래 呂叔湘(1980/2007), 劉月華(2001/2005) 등과 같은 기존의 학자들은 ‘起’를 ‘방향동사’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馬玉萍(2005: 36)은 동사 ‘起’는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던 원점에서 위치 이동을 하여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세 변화만을 나타내고, 상하좌우 좌표상의 어떠한 이동도 없기 때문에 이동을 나타내는 방향동사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최규발(2008: 3-7) 역시 ‘上’, ‘下’, ‘進’, ‘出’, ‘回’, ‘過’는 전형적 이동동사의 조건을 갖추었으나 ‘起’는 비전형적인 이동사건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는 동사 ‘起’가 t<sub>0</sub>에서 t<sub>1</sub>로의 변화만 존재하므로 I=F이기 때문에 ‘성취동사(achievement)’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Xiao & McEnergy(2004)에 따르면 이 성취동사는 [-지속], [+경계], [+종결], [+결과]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성취동사는 동작 행위가 발생하는데 있어 지속성을 갖지 않는 대신에 동작의 결과가 명확하다. 또한 이러한 동작의 결과로 인한 상태는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여 ‘起’를 ‘방향동사’에서 제외시켰다. 따라서 뒤의 ‘來’도 역시 다른 방향동사와의 결합과 달리 이동의 직시소(deixis)

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술어동사 뒤에 놓여 복합방향보어(directional complement, V起來<sub>1</sub>), 동상보어(phase verb compliment, V起來<sub>2</sub>), 기시상 표지(inceptive aspect marker, V起來<sub>3</sub>), 그리고 양상 표지(modality marker, V起來<sub>4</sub>)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대칭되는 ‘起去’는 현재 찾아 볼 수 없는데,<sup>2)</sup> 이것은 현대중국어에서 ‘X來’ 구조와 ‘X去’ 구조가 의미적, 기능적으로 대칭되는 현상에 부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방향동사 ‘上’, ‘下’, ‘進’, ‘出’, ‘回’, ‘過’의 경우, ‘來/去’와 결합하여 복합방향동사를 이루고, 이들은 ‘來’와 결합했는지 혹은 ‘去’와 결합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서로 의미적, 기능적 대칭을 이룬다. 하지만 ‘起來’는 표면적으로 이들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대칭되는 ‘起去’는 아래와 같이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sup>3)</sup>

(1) a. 一只大黑烏鴉飛下來.

크고 검은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 내려온다.

b. 我的部下都已經累了, 我們得爬下去。

나의 부하가 이미 지쳐서, 우리는 내려가야만 한다.

(北京大 CCL)

(2) a. “你亂講甚麼?”文婷婷衝動地站起來。

“당신 뭐라고 지껄이는 거야?” 文婷婷은 발끈해서 일어섰다.

(戴耀晶, 1997: 95)

역할을 하지 않고 심리적 기준점만을 제공하는 것이다(신경미, 2009: 7-18 참조).

2) ‘대칭(symmetry)’과 ‘비대칭(asymmetry)’이란 원래 일생생활의 한 개념으로서 한 쌍이 서로 대응(對應)관계에 있으면 ‘대칭’이라고 하고, 대응관계에 있지 않으면 ‘비대칭’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언어의 음성, 통사, 의미, 화용 등 각 방면에서도 나타난다.

(沈家煊, 1999: 1-4).

3) 실제로 國家語委 現代漢語 코퍼스(<http://www.cncorpus.org/ccindex.aspx>)와 北京大學 現代漢語 코퍼스([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ir=xiandai](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ir=xiandai))를 검색한 결과 현대중국어에서 ‘起來/V起來’의 경우, 國家語委 現代漢語 코퍼스에서는 총 10196개, 北京大學 現代漢語 코퍼스에서는 125644개가 추출되었다. 하지만 ‘起去/V起去’의 경우, 國家語委 現代漢語 코퍼스에서는 한 문장도 검색되지 않았고, 北京大學 코퍼스에서는 ‘V起去’ 구조의 8개 문장이 검색되었는데, 이것은 현대중국어에서 사용되기 보다는 근대 문학 작품에 포함된 소수의 것으로 여겨진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① 州曰：“放不下，擔起去。”(州가 말하길, “내려놓을 수가 없어, 메고 나가”)

② 依舊半夜裏悄悄爬起去。(여전히 한밤중에 살금살금 기어 나갔다.)

(北京大 CCL)

b. ?“你亂講甚麼?”文婷婷衝動地站起去。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1)과 같은 ‘下來’와 ‘下去’의 의미적, 기능적 대칭은 현대중국어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지만, (2)와 같이 ‘起來’와 대칭 관계를 이루는 것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처럼 현대중국어에서 나타나는 ‘起來’와 ‘起去’의 비대칭 현상에 관한 문제를 자세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起來/去’의 초기 출현과 문법화(Grammaticalization)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현대중국어에서 ‘起去’의 쓰임새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起來’와 대칭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sup>4)</sup> 그렇다면 이 ‘起去’는 현대중국어 이전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邢福義(2002, 2003, 2005), 王燦龍(2004),

4) 하지만 崔振華(2007: 65-68)에 의하면 현재 湘方言에서는 ‘起去’가 소실되지 않고 아직까지 자주 사용되고 있고, 이것은 ‘起來’와 마찬가지로 문법화 과정을 거치며 점점 상표지(aspect marker)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가 설명하는 湘方言의 예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i) ‘起去’가 단독으로 술어동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 ‘앉다(坐)’, ‘눕다(臥)’, ‘무릎을 꿇다(跪)’ 등의 상태에서 ‘(몸을) 일으키다’의 의미를 갖고, 표준 중국어의 ‘起來’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你麼子時候起去的, 我何甚不曉得吶? (너 언제 일어 난거야, 내가 왜 몰랐지?)  
你先起去吧, 我還想睡下子。(너 먼저 일어나, 난 좀 더 자고 싶어.)

(ii) ‘起去+VP’ 구조: 연동문 구조로 뒤의 ‘VP’는 ‘起去’의 목적이 된다.

外頭有人敲門, 你快些起去開門囉。  
(밖에 사람이 노크하잖아, 너 빨리 일어나서 문 열어.)  
我起去接只電話就來。(나는 일어나서 전화 받고 왔어.)

(iii) ‘V+起去’ 구조: 이것은 다시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① ‘起去’가 여전히 ‘일어나다’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의미 핵심은 ‘起去’가 아닌 ‘V’이다.  
你快站起去, 讓爺爺來坐。(너 얼른 일어나서 할아버지 앉으시게 해라.)  
② ‘원래의 위치에서 떠나감’을 나타내고 표준중국어에서는 단지 ‘去’만으로 나타낸다.  
你走的時候, 把咯幾件衣服帶起去。(너 갈 때, 이 몇 벌의 옷을 가지고 가거라.)  
③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어 표준중국어에서의 ‘下去’와 동일하다.  
你莫怕, 只敢搵起去!(두려워하지 말고, 얼마든지 계속해 나아가라!)

馬玉汭(2005), 劉寧(2008) 등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起去’의 존재 및 성립 여부, 그리고 문법화 과정을 전면적으로 고찰해 나갔다. 여기서 그들의 공통적 견해는 현대중국어 이전에 ‘起去’ 역시 사용되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언어가 변화함에 따라 이것의 사용빈도는 줄어들게 되었고, 지금은 소실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邢福義(2002, 2003)는 여러 가지 역사 문헌을 통해 ‘起去’가 존재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起去’는 언어가 발전하고 변화함에 따라 소실되어 문법화의 과정을 완성시키지 못했지만, ‘起來’는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문법화 과정을 완성시켰다고 설명하였다.

王燦龍(2004: 30-31)도 ‘起去’가 ‘起來’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출현하였지만, 그 사용빈도에 있어서는 ‘起來’보다 훨씬 적었다고 한다. 그는 현대중국어 이전 시기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起來’와 ‘起去’의 비율은 대략 64:1정도로 나타나다가 사용빈도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起去’는 소실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劉寧(2008: 164)도 고대 문헌을 조사해 본 결과, 당시에 ‘起來’와 ‘起去’는 함께 사용되었고, 이들의 사용빈도를 조사해 보니 아래와 같이 도출해 낼 수 있었다고 한다.

<표 2-1> 고대 문헌에서 ‘起來’와 ‘起去’의 사용빈도 (劉寧, 2008: 164)

	元	明	清
起來	604	7414	40458
起去	33	189	420

위의 <표 2-1>에 의하면 현대중국어 이전에 ‘起來’와 ‘起去’는 분명 함께 사용되었지만, ‘起來’의 사용빈도는 ‘起去’에 비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러한 기존 학자들의 견해를 근거로 하여 좀 더 자세히 이들의 초기 출현과 문법화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것은 기존 연구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고찰해 나갈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제시한 많은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起來’와 ‘起去’가 공존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 2.1 ‘起來’의 초기 출현과 ‘V起來’로의 문법화

盧業林·覃明明(2009: 45-46)에 의하면 ‘起’는 형성자(形聲字)에 속하고, 《說文解字》에서 “能立也。從走, 巳聲。(‘起’는 일어설 수 있다는 뜻이다. ‘走’는 의미 부분이고, ‘巳’는 발음 부분이다)”라고 하였으며, 이것의 본뜻은 ‘누워있다 앉거나, 앉아있다 일어서는(由躺而坐, 由坐而立)’, 즉 전형적 방향동사로 ‘공간이동(空間位移)’을 나타낸다고 하였다.<sup>5)</sup> 이후에 이것은 ‘똑바로 (곧게) 서다(竪立)’, ‘우뚝 솟다(聳立)’, ‘기상하다(起末)’ 등의 의미를 시작으로, ‘일으키다(引動)’, ‘일어나기 시작하다(興起)’ 등의 의미로 파생되었으며, 더 나아가 ‘시작하다(開始)’의 의미까지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起’는 공간이동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는데, 그 예는 아래와 같다.

(3) 包無魚, 起凶。《周易》<sup>6)</sup>

바구니에 물고기가 없으니, 흉한 일이 생기는구나.

5) 하지만 현대 언어학적 관점으로 볼 때, ‘起’는 ‘공간이동’은 나타내지 못한다. 그것은 ‘起’가 Talmy(1985, 1991, 2000)에서 제시한 이동사건의 기본적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동사건을 구성하는 인지적 성분으로 <전경(Figure)>, <배경(Ground)>, <경로(Path)>, <이동(Motion)>, 및 <방식(Manner)>, <원인(Cause)>의 여섯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고, 이 중에서 앞의 <전경>, <배경>, <경로>, <이동>은 이동사건의 기본적 구성 요소이며, 뒤의 <방식>, <원인>은 부차적 구성 요소로 보았다. 하지만 ‘起’는 기본적 구성요소인 <배경>을 취할 수 없다.

① 哈里斯沒等翻譯翻完, 就起身離去。

해리스는 번역이 다 끝마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곧 몸을 일으켜 떠났다.

(북경대 CCL)

여기서 ‘起’는 ‘일어서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어 ‘哈里斯’가 동사 ‘起’를 통해 원점에서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즉 ‘哈里斯’의 신체가 수직 상승으로의 자세 변화만을 나타내므로 그 근원지점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 변화가 없다. 또한 ‘哈里斯’가 <전경>이고, ‘起’가 <경로+이동>이라 할지라도 <배경(참조점)>은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사건]이 된다. 최규발(2008: 2-7)도 역시 ‘起’는 이처럼 다른 방향동사와 달리 ‘이동사건(motion event)’을 나타내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起來’와 ‘起去’가 공간적, 시간적 대칭성을 잃게 하였고, 다른 복합방향동사에 비해 쉽게 상적 의미를 취해왔다고 설명하였다.

6) 본고에서 사용된 고대문헌의 예문들은 모두 邢福義(2003), 王燦龍(2004), 盧業林·覃明明(2009), 박원기(2008)를 재인용 하거나 國家語委 古代漢語 코퍼스(<http://www.ncorpus.org/ACindex.aspx>)에서 필자가 검색하여 추출한 것이다.

(4) 九層之臺，起於累土，千里之行，始於足下。《老子》

구층의 누대도 (한 줌의) 쌓아놓은 흙에서 시작되고, 천리 길도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위의 (3), (4)에서 ‘起는 ‘(어떠한 일이) 생기다’, ‘시작하다’의 의미를 나타내어 ‘공간이동’의 의미는 모두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예들을 통해 東漢 이전에 ‘起의 용법은 이미 ‘공간이동’의 의미 외에도 ‘시간범위’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起는 언제부터 ‘來’와<sup>7)</sup> 결합하여 ‘起來’로 사용되었던 것일까? 鍾兆華(1985: 360-362)는 이전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대략 唐代的 《敦煌變文》에서부터 ‘起來가 하나의 어휘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예는 아래와 같다.

(5) a. 因得聽聞不退轉，起來禮謝不休停。《敦煌變文》

듣고 나서는 물러서 돌아가지 않고, 일어나 예를 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b. 其時善慶亦其堂內起來，高聲便喚，止住經題。《敦煌變文》

그 때에 善慶 또한 그 법당 안에 있다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며 經文 제목을 읽는 것을 멈추게 했다.

위의 (5)의 ‘起來는 단독으로 출현하여 ‘(몸을 일으켜) 일어서다’의 의미를 갖고 문장에서 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이 ‘跪(무릎을 꿇다)’, ‘坐(앉다)’, ‘臥(눕다)’의 자세에서 상향으로 일어서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뿐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이러한 ‘起來는 《敦煌變文》 외에도 여러 다른 고

7) 盧業林·覃明明(2009: 46)은 ‘來도 ‘起’와 마찬가지로 고대 문헌에서 ‘공간이동’의 의미 외에도 ‘시간 범위’까지 확대되어 사용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① 有朋自遠方來，不亦樂乎? 《詩經》

벗이 멀리서 왔으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간이동을 나타냄)

② 故遠人不服，則修文德以來之。《論語》

그러므로 먼 곳의 사람들을 따르지 않으면, 학문과 덕을 닦아 오게 한다. (‘불러 모으다(招致)’의 의미를 나타냄)

③ 自桓叔以來，孰能愛親。《國語》

桓叔 이래로 누가 어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과거(過去)’, ‘미래(將來)’, ‘어떤 시간 이후(某一段時間以後)’ 등의 ‘시간 범주’를 나타냄)

대 문헌에서 발견된다.

- (6) a. 師便臥倒, 良久起來. 《祖堂集·卷七》  
스승님께서서는 넘어지셨는데, 한참 후에 일어나셨다.  
b. 今朝起來, 所見所聞別也. 《古尊宿語錄·卷三十四》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보고 듣는 것이 (모두) 특별하구나.  
c. 昨夜四更起來, 呵呵大笑不歇. 《五燈會元·卷十六》  
어제밤 四更에 일어났는데, 하하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이처럼 唐代의 《敦煌變文》에서 시작된 ‘起來’는 다시 南宋, 元明에 이르러서는 아래와 같이 ‘V起來’ 구조로 출현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오늘날 보어의 역할과 동일하다(盧業林·覃明明, 2009: 46).

- (7) a. 扶起我來. 《南宋·五燈會元·卷十一》  
나를 일으켜 세워라.  
b. 待得再新整頓起來, 費多少力. 《南宋·朱子語類·卷八》  
기다리다 다시 새로 정돈했는데,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완성·결과)  
기다리다 다시 새로 정돈을 시작했는데,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시작)  
c. 若是這等看起來, 愧見天下英雄, 有何顏立於人世? 《元明·封神演義》  
만약 저들처럼 본다면, 천하영웅들 보기 부끄러워 어찌 세상에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위의 (7)의 예문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현대중국어에서 ‘V起來’의 여러 기능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7a)는 사람의 ‘수직 상승’을 나타내어 복합방향보어인 ‘V起來<sub>1</sub>’로, (7b)는 ‘완성·결과’와 ‘시작’이라는 상적 의미를 나타내어 동상보어 ‘V起來<sub>2</sub>’ 혹은 기시상 표지 ‘V起來<sub>3</sub>’으로,<sup>8)</sup> (7c)는 화자의 주관성을 드러내는 양상표지 ‘V起來<sub>1</sub>’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8) 현대 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현대중국어의 상표지들이 ‘RVC>PVC>관점상 표지’의 과정을 거쳐 문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V起來’ 역시 덜 문법화 된 PVC 형태의 ‘V起來<sub>2</sub>’와 더 문법화 된 상표지 형태의 ‘V起來<sub>3</sub>’이 공존한다고 여긴다. 따라서 위의 (7b)의 경우 ‘완성·결과’와 ‘시작’이라는 상적(aspectual)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두 가지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

더욱이 근대중국어의 대표 작품인 明代의 《水滸傳》에서도 이 'V起來' 구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 예는 아래와 같다.

- (8) a. 只見戴宗舒眉展眼, 便扒起來. 《水滸傳·39回》  
 戴宗은 편안하게 눈을 뜨면서 기어 일어났다.  
 b. 有幾個擲翻了的, 也有閃眊的, 扒的起來奔明。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빠고 하면서  
 기어 일어나 도망갔다. 《水滸傳·42回》  
 c. 小二扒將起來, 一道煙走了. 《水滸傳·50回》<sup>9)</sup>  
 小二是 겨우 기어서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처럼 '起來'는 唐代에서부터 '(낮은 자세에서 몸을 일으켜) 일어서다'의 의미를 갖고 단독으로 술어 동사 역할을 하다가 南宋, 元明에 이르러서는 'V起來'의 구조를 형성하여 현재의 보어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起來'의 의미와 기능의 확장이 현대중국어에 와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발생한 것임을 말해주고, 당시의 의미와 기능이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알게 해준다.

## 2.2 '起去'의 초기 출현과 'V起去'로의 문법화

이미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비록 사용빈도는 높지 않지만, 현대중국어 이전에도 '起去' 역시 존재하였다. 그렇다면 唐代에 처음 출현했던 '起來'와 달리 '起去'는 언

9) 박원기(2008: 145)는 근대중국어 시기에는 현대중국어와는 다른 다양한 문법형식이 존재했는데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현대중국어에서 주요한 형식으로 존재하며 계속 그 기능을 다하고, 일부는 다른 새로운 형식에 그 기능을 전수하고 자취를 감춘다고 한다. 이러한 형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V得방향'과 'V將방향'으로, 이 두 형식은 모두 현대중국어의 방향보어 역할과 동일하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모진석(2012: 1-5)에서도 'V將'은 근대중국어 시기 백화문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된 어휘 중 하나로 동태조사(動態助詞), 방향보어(方向補語)와 관련이 있었지만, 현대중국어에서는 소실되어 일부 방언에서만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제부터 출현했던 것일까?

邢福義(2003: 205-206)는 '起去'가 '起來'보다 먼저 출현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이천여 년 전의 司馬遷의 《史記》에서부터 단독으로 사용되어 술어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고, 후에 範曄의 《後漢書》와 唐詩에서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王燦龍(2004: 30-31)도 마찬가지로 '起去'는 《史記》에서부터 출현하였고, 이것은 '몸을 일으켜 떠나다(起身離開)'의 의미로 원래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 가는 이동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 (9) a. 戚夫人嗷啼流涕, 上起去, 罷酒。(《史記·留侯世家》卷55)  
 戚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고, 황제가 일어서 떠나자,  
 술자리는 끝이 났다.
- b. (劉恭)惶恐起去。(《後漢書·劉玄劉盆子列傳第一》)  
 劉恭이 황공해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났다.
- c. 暫語船檣還起去, 穿花落水益沾巾。(杜甫, 《燕子來舟中作》)  
 잠시 돛대에서 조잘대다 다시 일어서 날아가고, 꽃을 지나 물 위로  
 (가까이)날아가니 (눈물이)더욱 수건을 적시는구나.

위의 (9)는 모두 '起去'가 단독으로 출현하여 술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때 '起去'는 아래에서 위로 자세를 바꾼 다음, 다시 다른 어느 공간으로 나가는 것, 즉 뒤의 '去'가 첫 번째 운동인 '起' 이후의 또 다른 운동(혹은 이동)을 나타내어 '(몸을)일으켜 (다른 곳으로 향해)나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9a)는 낮은 자세로 있던 황제가 일어나 그 원점에서 벗어나서 다른 어떠한 공간으로 떠나 버린 것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9b), (9c)도 이 (9a)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馬玉汭(2005: 36)도 역시 이때의 '起去'는 '起身而離開'라는 병렬구조라고 하면서 鍾兆華(1988)에 근거하여 '起來'와 '起去'의 차이점을 설명하였다. 우선 '起來'와 '起去'는 모두 '跪(무릎을 꿇다)', '坐(앉다)', '臥(눕다)'와 같이 낮은 자세에서 상향으로 일어서는 행위를 나타낸다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起來'는 단지 누운 상태에서 앉은 상태로의 변화 혹은 앉거나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일어서는

상태의 변화만을 나타내어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起去’는 일어서는 상태의 변화가 생긴 후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난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를 갖는 ‘起去’도 역시 술어동사의 역할로 머문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V起去’로 확장되었다.

邢福義(2005: 2-3)는 이러한 ‘V起去’의 구조가 매우 늦게 출현하여 삼백여년 전의 《水滸傳》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이후에 다른 백화 작품에서도 계속해서 사용되었다고 한다. 특히 《西遊記》는 ‘起去/V起去’를 가장 많이 사용한 작품 중 하나라고 하면서<sup>10)</sup> 아래와 같은 예문들을 제시하였다.

- (10) a. 大聖見了, 蒐的一披飛起去, 變作一只大鷓老, 沖天而去。(《西遊記》, 第6回)  
 제천대성이 (그것을) 보더니, 날개를 치며 날아올라 큰 가마우지로 변해 하늘로 치솟았다.
- b. 孫行者一筋鬥跳將起去, ……。(《西遊記》, 第17回)  
 손오공이 한 차례 공중제비를 돌아 뛰어넘어 올라가니……
- c. 原來那個假身本是毫毛變的, 卻就飄起去, 無影無形。(《西遊記》, 第49回)  
 원래 그 가짜 몸은 머리털이 변한 것이어서, 곧바로 떠올라 날아가더니 그림자조차 사라져버렸다.
- d. 這太子又弄出降妖法力, 將六般兵器拋將起去。(《西遊記》, 第51回)  
 이 태자는 다시 요괴에 대항하는 술법을 써서, 여섯 가지 병기를 던져 버렸다.

위의 (10)의 예문들은 ‘V起去’와 ‘V將起去’의 형태로 현재의 보어의 역할과 동일하고, 여기서는 앞의 동사가 갖고 있는 [+이동성]과 함께 원점에서 벗어난 ‘이동 사건(motion event)’을 나타내고 있다.<sup>11)</sup> 예를 들어 (10a)는 이동동사 ‘飛(날다)’

10) 여기서 그는 ‘起去’가 단독으로 5회, 보어로 27회가 사용되어 모두 32회가 출현하였다고 한다.

11) 신경미(2010: 20)에 의하면 ‘起來’는 자세 변화를 나타내는 ‘起’와 그 자세 변화의 심리적 참조점을 제공하는 ‘來’가 결합하였기 때문에 이동사건을 나타내지 못하고, ‘起去’는 이와 달리 ‘起’ 자체가 자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동일하지만, ‘去’가 이동과 더불어 이동 방향이 기준점으로부터 멀어짐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의 이동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가 ‘起去’와 결합하여 ‘날아서 (본래의 자리에서) 떠남’을 나타내고, (10b)도 역시 이동동사 ‘跳(뛰다)’와<sup>12)</sup> 결합하여 ‘뛰어 넘어 (본래의 자리에서) 떠남’을 나타낸다. 아래의 (10c)와 (10d)도 동일한 설명이 적용된다.

이처럼 근대 백화 작품에서 ‘V起去’를 자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위의 ‘V起來’와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문법화 과정에 진입했다는 것을 말한다.

邢福義(2003: 205-209)는 당시의 이러한 ‘起去’의 문법화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는데, 첫 번째가 ‘구조 배열(結構配置)’의 문법화이고, 두 번째는 ‘내포된 의미(意義內涵)’의 문법화이다. 먼저 구조 배열의 문법화는 단독으로 출현하는 ‘起去’에서 보어로 사용되는 ‘V起去’의 구조로 변화한 것을 말하고, 두 번째로 내포된 의미(意義內涵)의 문법화는 ‘起去’가 ‘실제 갖고 있던 의미(實義)에서 점점 약화(弱化)되어 의미적 허화(虛化)가 되어가는 문법화를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起去’는 더 이상 ‘일으켜 나가다’라는 연동의 의미는 나타내지 않게 되었고, 위의 (10)의 예들과 같이 완전한 동보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기존 학자들의 연구 자료를 통해서 ‘起來’와 ‘起去’가 초기 출현의 시기적 차이는 있지만, 현대중국어 이전에는 공존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들보다 확장된 ‘V起來’, ‘V起去’ 구조, 즉 문법화 과정도 각각 南宋시기와 明代시기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물론 현재 중국어 연구에 있어서 ‘起來’와 ‘起去’를 현대 언어학적 관점으로 재 설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이들의 문법화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로 인한 이들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는 분명 현대 언어학적 관점에서 다시 살펴봐야만 한다. 하지만 본고는 소실되어 버린 ‘起去’가 이전에 ‘起來’와 공존했는가, 만약 공존했다면 당시 이들의 의미와 기능은 어떠한가, 그리고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현재 ‘起來’와 비대칭 현상이 생겨났는가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에 관한 논의는 제외시키고자 한다.

12) 동사 ‘跳’는 ‘(제자리에서 반복적으로) 깡충깡충 뛰다’라는 의미와 ‘(원래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뛰어 넘어’라는 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동(motion)’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므로 후자의 의미로 봐야한다.

아래에서는 위의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起去’만이 소실되었고, 이에 따라 왜 현재 ‘起來’와 비대칭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 현대 언어학적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 ‘起來’와 ‘起去’의 현저성(saliency)

‘起來’와 ‘起去’의 비대칭 현상에 관하여 분석한 연구는 현재 많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물론 앞서 ‘起去’를 연구한 학자들이 언급하기는 했지만, 이들의 비대칭 현상을 정확히 규명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王燦龍(2004: 33-35)은 ‘起去’가 소멸된 원인이 ‘起來’는 목표점이 분명히 드러나 결과 후에도 청자가 그 목표점과 대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반해, ‘起去’는 목표점이 분명히 드러나지도 않고 결과 후에도 청자가 목표점과 대상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의 견해에 따르자면 이 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분명 이처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기능을 분리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굳이 한 가지를 소멸 시켜야만 했는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馬玉汭(2005: 37)은 이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起去’가 때로는 ‘起來’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鳥飛起來了。(새가 날아 올랐다.)”의 경우 이전의 ‘起去’가 가지고 있던 의미와 동일하여 이 두 가지 형식이 경쟁적으로 사용되다가 그 중 ‘起來’만이 남게 되었고, 이후에는 홀로 계속적인 문법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이처럼 이들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起來’가 아닌 굳이 ‘起去’가 소실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다. 이후에 梁銀峰(2007), 劉寧(2008) 등과 같은 여러 중국학자들도 이 문제에 관하여 논의한 적은 있지만, 위의 기존 학자들의 견해를 따른 것일 뿐,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반해 최규발(2008), 신경미(2010)는 이러한 기존학자들의 견해를 토대

로 하여 현대 언어학적 이론인 ‘현저성의 원리(salience principle)’로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이전 연구보다 ‘起來’와 ‘起去’가 가지고 있는 의미기능과 특징, 그리고 인간의 인지 체계를 고려한 설명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들의 견해를 다시 설명하기에 앞서 여기서도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난다. 그것은 바로 ‘起來’와 ‘起去’가 다른 복합방향동사들과 표면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달리 대립성(opposition)이 아닌 왜 현저성으로 설명했는가이다. 그것은 이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起來’와 ‘起去’는 의미적, 기능적 대립이 없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다시 말해 ‘起來’와 ‘起去’는 표면적으로 ‘X來’와 ‘X去’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들이 대립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들은 의미적, 기능적으로 대립되지 않는다.

Radden(1996: 425)에 의하면 ‘come(來, 오다)’과 ‘go(去, 가다)’는 대표적 이동동사(motion verb)로서 이 둘은 상대적 이동을 나타내는 ‘대립어(opposite)’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위의 ‘X來’와 ‘X去’로 구성된 ‘起來’와 ‘起去’도 ‘(몸을) 일으켜 오다’와 ‘(몸을) 일으켜 가다’로 상대적 이동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다시 예문 (5a)와 (9a)를 살펴보도록 하자.

- (5) a. 因得聽聞不退轉, 起來禮謝不休停。 《敦煌變文》  
 듣고 나서는 물러서 돌아가지 않고, 일어나 예를 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 (9) a. 戚夫人嗷啼流涕, 上起去, 罷酒。 (《史記·留侯世家》 卷55)  
 戚부인은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고, 황제가 일어서 떠나자, 술자리는 끝이 났다.

위의 (5a)의 ‘起來’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낮은 자세에서 몸을 일으켜) 일어서다’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과 대립되기 위해서는 ‘(높은 자세에서 몸을 낮춰) 앉다(혹은 눕다)’가 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9a)의 ‘起去’는 ‘(낮은 자세에서 몸을 일으켜)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起來’와의 의미 차이는 결과가 원점에서 벗어났다는 것뿐이다.

Cruse(2000/2006: 167-168)에 의하면 대립어의 속성을 이원성(binarity), 본유성(inherentness), 그리고 명백성(patency), 이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여기서 이원성은 본유성과 명백성을 갖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다시 말해 두 어휘 간에 먼저 이원성의 자질을 포함하고 있어야 그 안에서 다시 본유성과 명백성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起來’와 ‘起去’는 이 선결조건인 이원성부터 결여되었다.<sup>13)</sup> 즉 이들 사이에는 馬玉汴(2005: 37)이 설명한바와 같이 때로는 교집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원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사하게 사용되던 이들은 그 사용 구별에 있어서도 불분명 했을 것이고, 이후에는 위의 王燦龍(2004: 33-35)이 제시한 바와 같이 사건의 결과가 사람의 인지 체계에서 벗어나버린 ‘起去’는 점점 사용 빈도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王燦龍(2004)의 견해를 토대로 이 문제를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인지 체계에서는 두드러진 쪽을 그렇지 않은 쪽보다 먼저 인지하게 되고, 적극적 요소와 소극적 요소 중 적극적인 요소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은 ‘起來’와 같은 경우를 더 쉽고 빠르게 인지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 최규발(2008), 신경미(2010)가 제시한 ‘현저성의 원리(salience principle)’인데, 이 ‘인지적 현저성의 원리(cognitive salience principle)’란,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다음과 같은 상대적 현저함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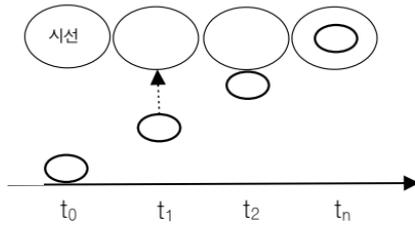
- (11) human > non-human, whole > part, concrete > abstract,  
visible > nonvisible

이처럼 인지적 현저성의 원리는 위의 (11)과 같이 지각상의 현저함이 인지적 현저함으로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Langacker, R. W., 1993: 30). 이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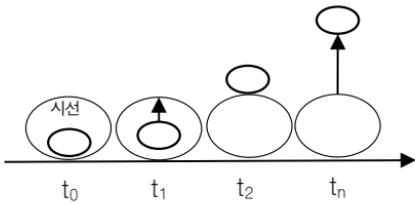
13) 먼저 이원성(binarity)은 ‘male/female’, ‘dead/alive’ 등과 같이 중간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다음으로 본유성(inherentness)은 ‘up/down’의 경우 수직 축을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논리적으로 두 가지로만 제한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들의 이원성은 본유성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명백성(patency)은 ‘yesterday’와 ‘tomorrow’가 상대적인 시간 축을 따라 대립되는 방향이 ‘today’를 중심으로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명백성(patency)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Cruse(2000/2006: 167-168)

은 개념화자가 장면을 해석 할 때 어떤 부분에 윤곽(profile)을 부여하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起來'는 화자가 '목표'에 윤곽을 둔 것, 즉 결과에 현저성을 부여한 것이라면, '起去'는 화자가 '원점(원인)'에 현저성을 부여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起來'와 '起去'의 의미를 도식화 해보도록 하겠다.

<그림 3-1> '起來'의 의미



<그림 3-2> '起去'의 의미



위의 <그림 3-1>은 탄도체가 상향으로의 자세 변화 후, 화자와 청자의 시선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타낸다. 이때 이 시선은 청자와 화자의 인식 범위가기도 하고 심리적 기준점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來'의 역할이다. 다시 말해 이 '起來'를 포함한 문장을 사용한 경우 화자와 청자의 시선은 모두 상향으로의 자세 변화가 완료된 위치에 놓이게 되어 그 결과가 매우 현저하게 인지된다. 또한 여기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起來'는 이동사건이 아닌 수직 상승으로의 변화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탄도체의 움직임을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반면 위의 <그림 3-2>는 '起來와 달리 '去'를 통해서 탄도체가 화자와 청자의 시선에서 벗어남을 나타낸다. 이때 '去'는 위의 '來'와 같이 심리적 기준점을 제공하

는 것이 아니라 '起'로 인한 상향으로의 자세 변화 후, 그 기준점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때 화자와 청자의 시선은 자세 변화가 시작되기 이전과 자세 변화가 일어나는 기준점에서만 머물게 되어, 그 결과는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해  $t_0$ 에서  $t_1$ 까지 '起'로 인한 상향으로의 자세 변화는 인지할 수 있지만,  $t_2$ 에서부터  $t_n$ 까지는 '去'의 영향으로 화자와 청자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져 인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이동사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선으로 나타내었다.

이처럼 위의 도식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 '목표(결과)'로 향하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起來'의 경우 '목표(결과)'에 현저성이 부여되어 그 사건의 결과를 직접 감지할 수 있는데 반해, '起去'의 경우 '원점(원인)'에 현저성이 부여되어 사건의 결과를 직접 인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起來'를 사용할 경우 그 '목표'의 대해 쉽게 파악하고 처리하지만, '起去'를 사용할 경우 그 '목표'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신경미, 2010: 25 참조). 다시 아래의 예문을 비교해 보자.

(12) 坐在牆角的那個人，慢慢地貼着牆起來了。

벽 모퉁이에 앉아 있는 저 사람은 천천히 벽을 붙잡고 일어났다.

(北大 CCL)

(13) (劉恭)惶恐起去。(《後漢書·劉玄劉盆子列傳第一》)

劉恭이 황공해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났다.

위의 (12)의 경우 화자와 청자가 사람이 벽을 붙잡고 일어서 있는 결과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13) 경우 劉恭이 있었던 자리에서 떠나버렸다는 사건만을 알 뿐, 그가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화자와 청자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

사람의 인지 체계에서는 원인보다 결과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우선시하게 된다. 즉 어떠한 결과를 보거나 이해한 후 원인을 찾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언어 환경에서도 '원점(원인)'보다는 '목표(결과)'에 현저성을 부여하는 것이 더 자연스

러운 표현이 된다. 이에 따라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현저성이 없는 ‘起去’는 ‘起來’와의 사용빈도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을 것이고, 근대 중국어 이후에는 그 사용빈도가 급격히 감소되어 현재의 ‘起來’와 같이 주관화 표지까지의 과정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 4. 결 론

본고에서는 현대중국어에서 표면적으로 복합방향동사들과 동일하게 ‘X來’, ‘X去’의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칭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起來’와 ‘起去’의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먼저 현대중국어에서는 ‘起去’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이전 시기에 ‘起去’의 존재와 성립여부 및 문법화에 대해서 검증하는 작업을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起來’와 ‘起去’가 초기 출현 시기와 문법화 시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분명 이들은 공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들의 의미도 구조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대립적이지 못하고 유사하게 사용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起來’와 ‘起去’는 사용에 있어서 그 의미와 기능의 구분이 불분명하게 되었지만, 이후 사용 경쟁에 있어서 인간의 인지적 차이로 인해 ‘起來’만이 남게 된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이것을 현대 언어학적 관점인 현저성의 이론으로 설명하였는데, ‘起來’는 ‘목표(결과)’에 현저성을 갖는데 반해, ‘起去’는 ‘원점(원인)’에 현저성을 갖게 되어 그 결과는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현대중국어에서 소실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현대중국어에서 ‘起來’는 홀로 남게 되었고, 다른 ‘X來’, ‘X去’ 구조와 다르게 대칭적인 존재가 없게 된 것이다.

또한 본고를 통해서 ‘起來’가 다른 복합방향동사들과 동일하게 취급되는데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미 앞서 주석 (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起’는 다른 방향동사들과 달리 [-이동사건]이기 때문에 ‘起來’ 경우 이들과는 다른 과정을 통

해 주관성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비전형적인 이동사건을 갖는 'X來/去' 혹은 'VX來/去'의 관한 연구는 전형적 이동사건을 갖는 것들과 다른 관점에서 설명되어야만 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후 연구에 있어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도 다시 자세히 논해보고자 한다.

### < 參考文獻 >

- 김동환(2005), 《인지언어학과 의미》, 서울: 태학사.
- 모진석(2012), 《〈金瓶梅詞話〉 '將'字 구조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원기(2008), <《水滸傳》 'V得/將Cdir'구조에 나타나는 도상성과 현저성>, 《中國語言研究》, 제26집.
- 신경미(2010), 《현대중국어 '起來/V起來' 구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지룡(2000), <한국어 이동사건의 어휘화 양상>, 《현대문법연구》, 제20집.
- 최규발(2008), <방향보어의 문법적 의미>, 《中國學論叢》, 제24집.
- 陳明舒(2005), 《補語 '上, 下, 起來'의 의미 기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崔振華(2007), <湘方言中的“起去”已經語法化>, 《漢語學報》, 3期.
- 梁銀峰(2007), 《漢語動詞的語法化》, 上海: 學林出版社.
- 劉 寧(2008), <也說“起去”>, 《語文學刊》, 5期.
- 盧業林·覃明明(2009), <由實到虛, “起來”的語法化過程>, 《語言應用研究》, 11期.
- 馬玉汭(2005), <趨向動詞的認知分析>, 《漢語學習》, 6期.
- 沈家煊(1999), 《不對稱和標記論》, 江蘇教育出版社.
- 王燦龍(2004), <“起去”的語法化未完成及其認知動因>, 《世界漢語教學》, 3期.
- 邢福義(2002), <“起去”的普方古檢視>, 《方言》, 2期.
- \_\_\_\_\_(2003), <“起去”的語法化與相關文題>, 《方言》, 3期.
- \_\_\_\_\_(2005), <《西遊記》中的“起去”與相關問題思辨>, 《古漢語研究》, 3期.
- 鐘兆華(1985), <趨向動詞“起來”在近代漢語中的發展>, 《中國語文》, 5期.
- D. Alan Cruse(2000/2006), *Meaning in Language, 2nd ed.: An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Hopper, P. & Traugott, E.(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Huang, Su-miao · Hsieh, Shelley Ching-yu(2008), Grammaticalization of Directional Complements in Mandarin Chinese, *Language and Linguistics* 9.

Langacker, R. W.(2002), *Concept, Image, and Symbol*, 나익주(2005), 《개념, 영상, 상징》, 박이정.

Radden, G.(1996), Motion metaphorized: the case of coming and going. In Cased, E. H.(ed.), *Cognitive Linguistics in the Redwoods: The Expansion of a New Paradigm in Linguistics*, Berlin: Mouton de Gruyter.

Xiao, Zhonghua & McEnery, Anthony(2004), *Aspect in Mandarin Chinese*, John Benjamin Publishing Co.

< 中文提要 >

本文探討了關於“起來”與“起去”的不對稱現象。現代漢語裏已找不到“起去”的用法，我們可以採納前人對“起來”與“起去”共存的研究成果。從中我們還了解到現已完成語法化的“V起來”與“V起去”的結構不是從現代漢語開始的，而是很早以前就已出現。比如，單獨充當謂語的“起來”在唐代《敦煌變文》中最早出現，後來到了南宋，元明時期經過語法化形成“V起來”結構。這與現代漢語補語的用法相同。

“起去”的出現早於“起來”，並且早在兩千年前就出現了。在司馬遷的《史記》中，“起去”就單獨充當謂語，後來在範曄的《後漢書》和唐詩中也出現過。“起去”與“起來”相同，它也通過語法化的過程，而形成了“V起去”的結構。這種結構最初出現於《水滸傳》，後來也出現在近代白話作品中。

此外，二者這種不對稱現象的原因是因為它們之間沒有意義和功能的對立性(opposition)，所以可以按照認知的差異，即突顯性(saliency)來說明問題。“起來”包含著可以認知到事件結果的突顯性，但“起去”則沒有。因此“起去”脫離認知範圍，隨著使用頻率的減少。這“起去”在現代漢語裏的使用範圍也逐漸縮小的現象，引起到其語法化的過程也最終停止。

關鍵詞：起來 / V起來、起去 / V起去、對稱 / 不對稱、語法化、突顯性(saliency)

www.kci.go.kr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7. 1.	2012. 8. 1.	2012. 8. 15.	2012. 8. 21.	2012. 8. 31.